2017년 7월 10일 | 이슈분석

국제유가 하락, 어디까지?

최근 OPEC의 감산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 초반까지 급락하며 작년 11월 30일 OPEC의 감산 결정 이후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남. 이런 현상이 나타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드라이빙 시즌 효과가 미국의 증산으로 인해 약화된 데 있음. 미국 원유 생산량과 원유 시추공수 모두 2015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

공급 과잉 우려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중국 등 신흥국의 원유 수요 증가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선이 지지될 전망. 하지만 드라이빙 시즌이 일단락되는 4분기에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11월 열리는 제173차 OPEC 정례회담에서 산유국들이 감산 규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음.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Commodity Analyst 안예하
02) 3787-5241
yhahn@kiwoom.com

목차

Ⅰ. 왜 이번 OPEC 감산은 지난번과 다른가? 4

WTI, 감산 연장 합의 이후 17% 하락 4

Ⅱ. 미국 드라이빙 시즌 수요, 개선세 뚜렷하지 않아 5

2017년 드라이빙 수요, 전년비 상승세 둔화 5

Ⅲ.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생산량 증가 6

미국 원유 생산량,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 기록 6

캐나다 등 비 OPEC 국가 생산량도 동반 증가 7

OPEC의 생산량 증가도 부담 8

Ⅳ. 원유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은 없나? 9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는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 9

나이지리아와 리비아 증산 영향은 제한적 10

Ⅴ. 4분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전망 11

OPEC, 시장 점유율 vs. 시장 안정 11

시나리오①: OPEC이 감산 규모를 확대할 경우 11

시나리오②: OPEC이 시장 점유율을 택한다면? 12

OPEC의 높은 감산 이행률, 계속 유지될까 13

4분기 달러 강세, 유가 하락 압력 가할 듯 14

배럴당 40달러 하회시, 저가 매수 전략 유효 14

Ⅵ. 7월 둘째 주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15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슈분석

국제유가 하락, 어디까지?

WTI, 감산 연장 합의 이후 17% 하락

2017년 5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선 초반까지 급락. 작년 11월 30일 OPEC의 감산 결정 이후에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어섰으나, 이번 감산 연장 결정 이후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음.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효과 소멸

OPEC의 감산 연장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미국 드라이빙 시즌 수요 부진 우려 때문. 드라이빙 시즌에 돌입했음에도 휘발유와 원유 재고가 증가한 것은 2015~2016년 자동차 주행량 급증에 발 맞춰 이뤄진 증산으로 '기저효과'가 약화된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생산량 증가 속 공급 과잉 우려 높아져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미국 셰일업체의 원유 생산 증가도 재고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미국 원유 생산량과 원유 시추공수 모두 2015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술 혁신이 지속되며 생산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와 리비아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공급 과잉 우려를 높이는 요인.

원유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은 없나?

이상과 같은 유가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배럴 당 40달러 선이 지지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중국 등 신흥국의 원유 수요 증가 때문. 더 나아가 미국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유 등 '비'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점도 유가의 급락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하반기 원유 시장, OPEC의 결정이 주요 변수

국제유가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변수는 결국 '감산' 규모의 추가 확대 여부에 달린 것으로 판단됨. 11월 30일 제173차 OPEC 정례회담에서 OPEC이 추가 감산을 단행해 가격의 반등을 유도할지, 아니면 시장 점유율의 회복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산유국은 재정 적자 우려로, 오히려 증산을 통한 시장 점유율 회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 연말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음.

Ⅰ. 왜 이번 OPEC 감산은 지난번과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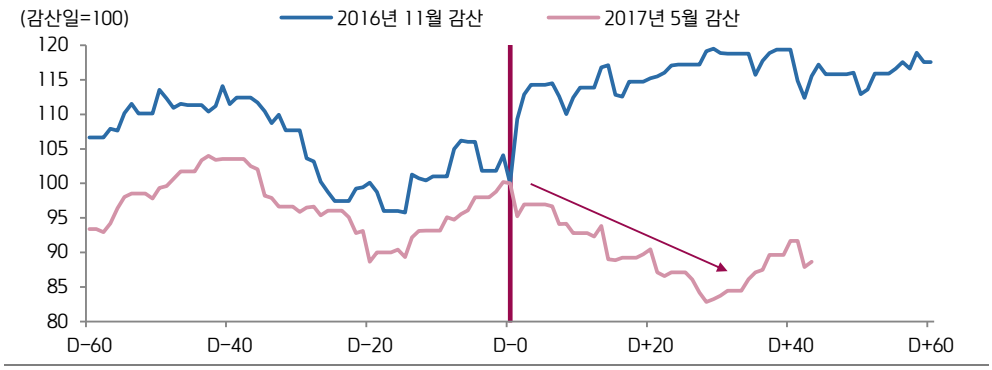
WTI, 감산 연장 합의 이후 17% 하락

지난 5월 25일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기존 2017년 6월까지의 감산 기한을 2018년 3월까지 9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산 연장 결정에도 국제유가는 17% 가량 하락하며 WTI는 배럴당 4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다(6월 21일 기준 42.53달러).

이는 작년 11월 30일 감산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특히 지난 감산 당시에는 원유에 대한 롱포지션이 증가했지만, 최근 원유에 대한 숏포지션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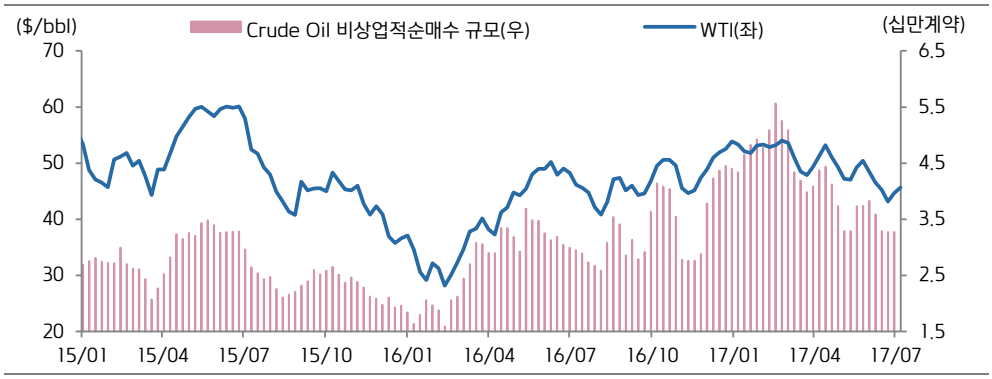
이번에는 왜 시장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

OPEC 감산일 전후 60일간의 국제유가 추이(감산일=100)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국제유가와 원유 비상업적 순매수 포지션 규모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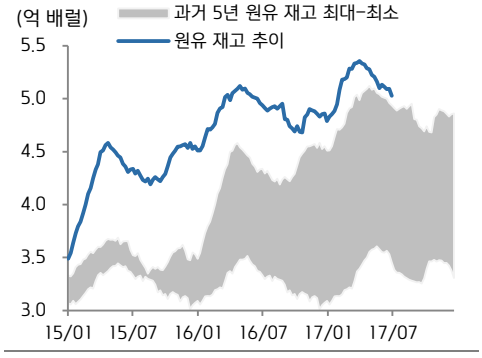
II. 미국 드라이빙 시즌 수요, 개선세 뚜렷하지 않아

2017 년 드라이빙 수요, 전년비 상승세 둔화

OPEC의 감산 결정에도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수요 부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은 5월말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그런데 올해는 이 시점부터 원유 및 휘발유 재고가 2주 연속 증가하면서 수요 부진 우려를 높이고 있다. 물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해 원유 및 휘발유 재고는 과거의 계절적 패턴을 그리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거 5년 범위 상단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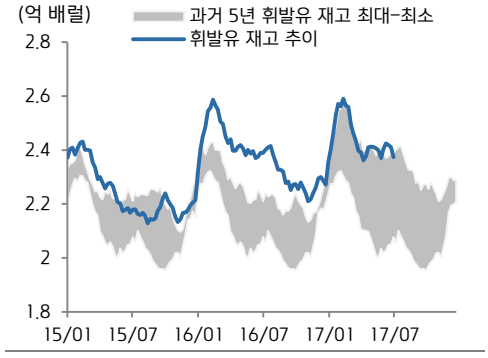
이렇게 드라이빙 시즌 원유 재고 감소 속도가 부진한 이유는 수요의 기저효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지난 2년(2015년, 2016년) 동안 자동차 운행량이 급증한 후, 2017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는 있지만 기저효과로 증가폭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영향에 올해는 재고 감소 수준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아 여전히 미국 원유 및 휘발유 재고는 과거 5년 상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원유 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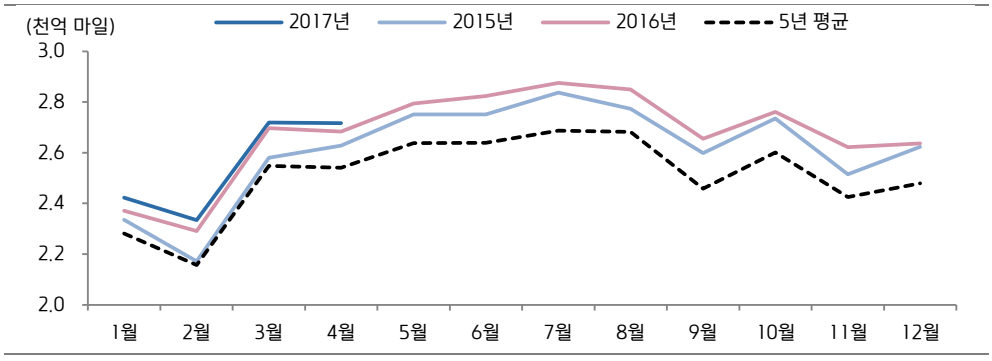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휘발유 재고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국내 자동차 주행거리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Ⅲ.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생산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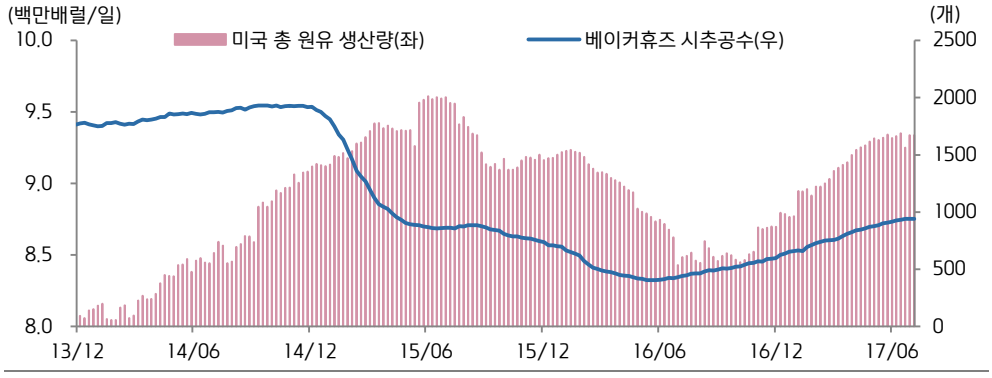
미국 원유 생산량, 2015 년 8 월 이후 최고치 기록

원유 재고 감소 속도가 느려진 데에는 수요의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발맞춰 진행된 미국의 생산량 급증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45~55달러 선으로 회복된 후 미국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6년 7월을 저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며, 최근에는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인 일간 934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베이커휴즈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원유 시추공수 또한 2016년 6월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2015년 4월 이후 최고치인 756개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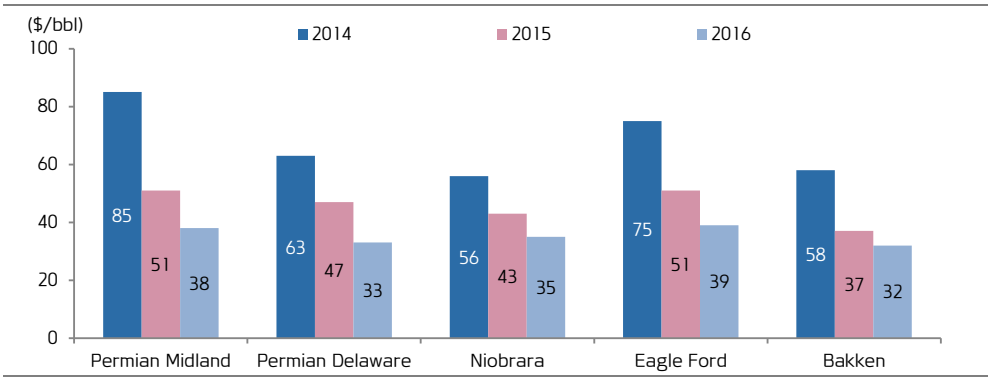
이렇게 미국의 생산량이 급증한 데에는 미국의 셰일 생산 기술력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셰일 생산 기술의 혁신 속에 Rystad Energy에서는 2016년에 주요 생산 지역의 생산 단가는 배럴당 30달러 선으로, 2014년에 비해 40~5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의 국제유가 수준에서 미국의 생산량은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 에너지 정보청(EIA)에서도 2018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일간 1천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원유 생산량과 베이커휴즈 시추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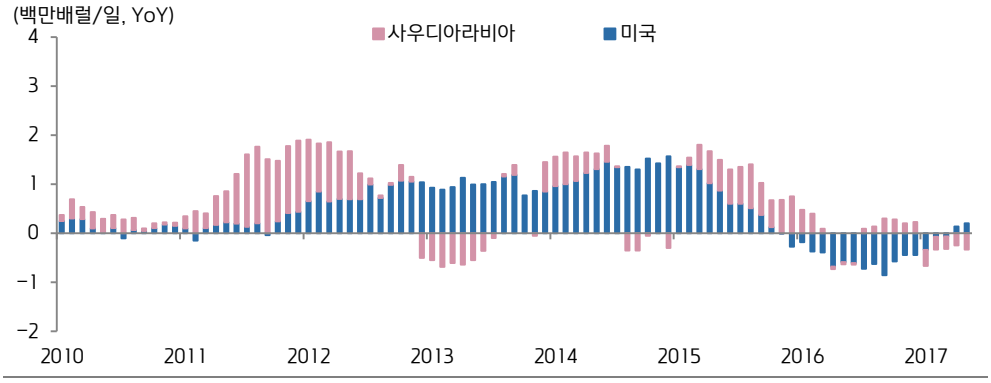
자료: EIA, Baker Hughes,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주요 원유 생산지역 손익 분기 유가



자료: Rystad Energ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 변화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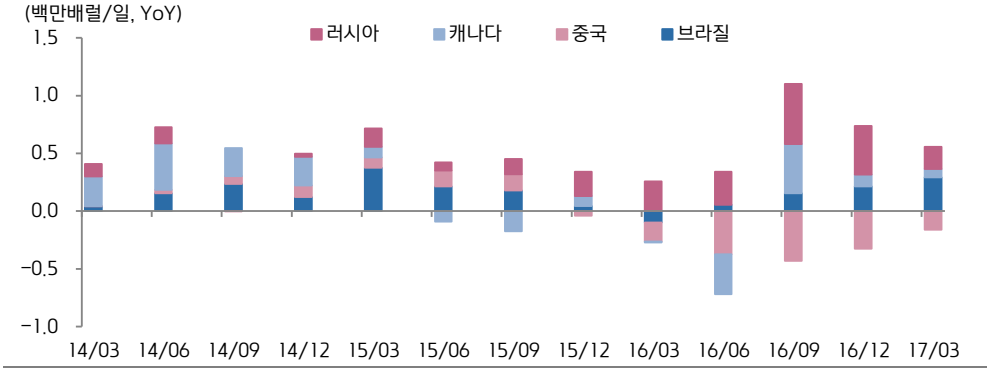
자료: EIA,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캐나다 등 非OPEC 국가 생산량도 동반 증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非OPEC 국가의 원유 생산량도 증가해 공급 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은 지난 3분기 연속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여기에 중국의 생산량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OPEC과의 감산 합의를 맺은 국가로, 향후 생산량 증가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제유가 회복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非OPEC 국가의 생산량이 회복된 것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과잉 공급 우려가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 非OPEC 국가 원유 생산 변화량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OPEC 의 생산량 증가도 부담

非OPEC뿐만 아니라 OPEC마저도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 OPEC에 따르면, 지난 5월 OPEC 원유 생산량은 4월에 비해 일간 33만 6천 배럴 증가했다. 감산을 시작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OPEC의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5월에는 다시 증가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특히 감산 합의에서 제외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공급 과잉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감산 합의 대상인 이란의 생산량도 지난해 연말 대비 증가하고 있어, OPEC의 높은 감산 이행률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OPEC 생산량 추이(천배럴/일)

	2015	2016	3Q16	4Q16	1Q17	'17년 3월	'17년 4월	'17년 5월	전월비	연말대비
알제리	1,107	1,090	1,093	1,091	1,053	1,051	1,049	1,059	9.6	-32
앙골라	1,755	1,725	1,756	1,623	1,631	1,599	1,667	1,613	-54.2	-10
에콰도르	543	546	547	542	529	525	525	528	2.2	-14
가봉	225	220	221	211	202	202	205	204	-1.3	-7
이란	2,836	3,518	3,646	3,741	3,796	3,792	3,791	3,795	4.5	54
이라크	3,961	4,390	4,406	4,604	4,447	4,425	4,379	4,424	44.4	-180
쿠웨이트	2,764	2,853	2,880	2,874	2,712	2,702	2,705	2,705	0.0	-169
리비아	404	390	309	574	656	612	552	730	178.2	156
나이지리아	1,839	1,557	1,376	1,553	1,511	1,456	1,506	1,680	174.2	127
카타르	663	656	651	642	608	612	613	615	1.8	-27
사우디	10,142	10,406	10,596	10,541	9,887	9,905	9,938	9,940	2.3	-601
UAE	2,906	2,975	3,045	3,079	2,935	2,909	2,903	2,885	-18.0	-194
베네수엘라	2,375	2,159	2,103	2,057	1,996	1,982	1,970	1,963	-7.7	-94
총계	31,519	32,486	32,630	33,133	31,963	31,770	31,803	32,139	336.1	-994

자료: OPEC,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Ⅳ. 원유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은 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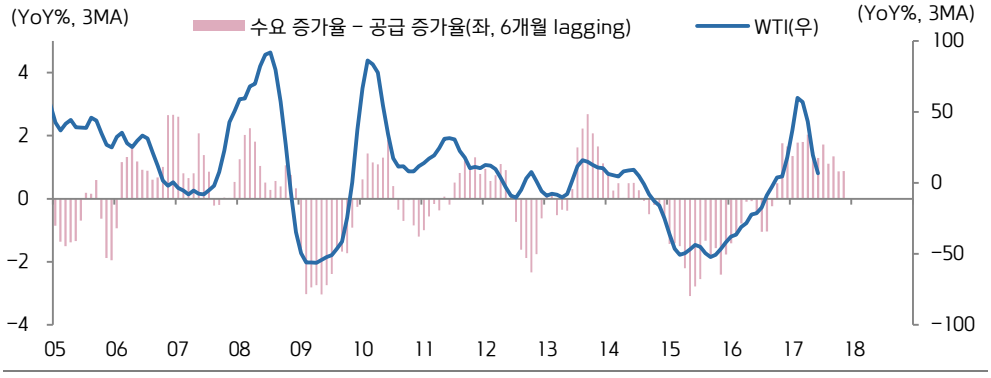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는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

이상과 같이 최근 유가 하락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국제유가의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속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선이 지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이 100을 상회하는 등 글로벌 경기의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원유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 원유 수입 증가율이 2017년 2월을 고점으로 꺾이기는 했으나, 신흥국의 원유 수입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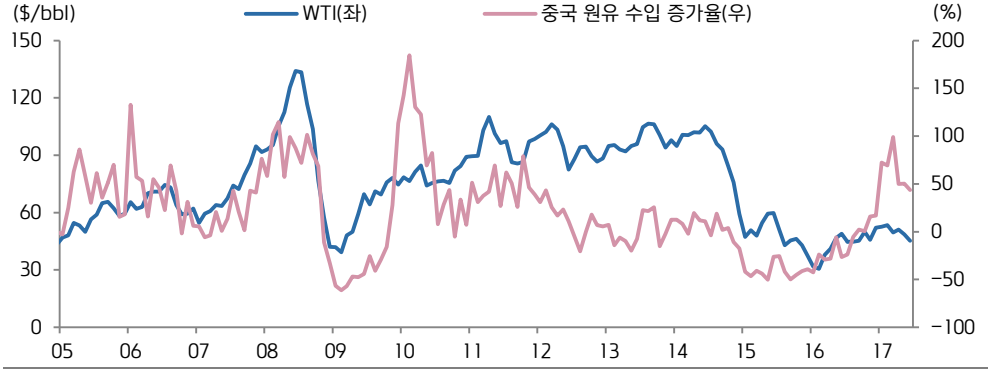
또한 아래 그래프와 같이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국제유가가 후행하여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요에 따라 국제유가의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원유 공급량과 수요량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중국 원유 수입 증가율과 WTI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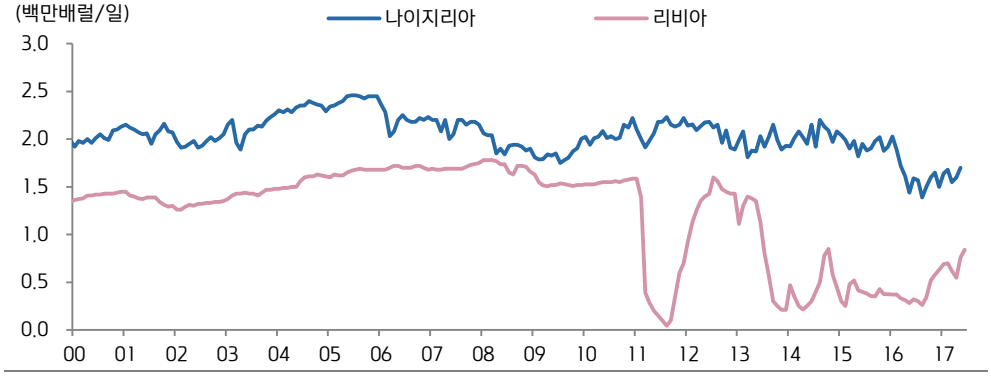
나이지리아와 리비아 증산 영향은 제한적

또한 한 가지 감안해야 할 부분은 최근 5월 OPEC의 생산 증가량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생산량이 시장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OPEC의 생산량에서 나이지리아와 리비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5월 기준으로 나이지리아와 리비아가 OPEC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 2%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평균 점유율은 각각 7%, 5% 수준으로,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한다 하더라도 절대적 수준이 낮아 여전히 두 국가의 생산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지난 4월 리비아 생산량은 무장단체의 석유시설 공격으로 감소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리비아 생산량이 계속해서 유지되는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두 국가의 생산량 확대는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나이지리아와 리비아 원유 생산량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Ⅴ. 4분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될 전망

OPEC, 시장 점유율 vs. 시장 안정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유 시장의 수요는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과잉 공급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변수는 산유국의 공급이다. 11월 30일에 열리는 OPEC의 제173차 정례회담에서의 공급량 결정이 국제유가의 향후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11월 회담에서 OPEC은 ①감산 규모 확대를 통한 가격 반등 유도, ②원유 시장 점유율 확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것이다. 각각의 시나리오 별로 향후 국제유가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 알아보자.

시나리오①: OPEC 이 감산 규모를 확대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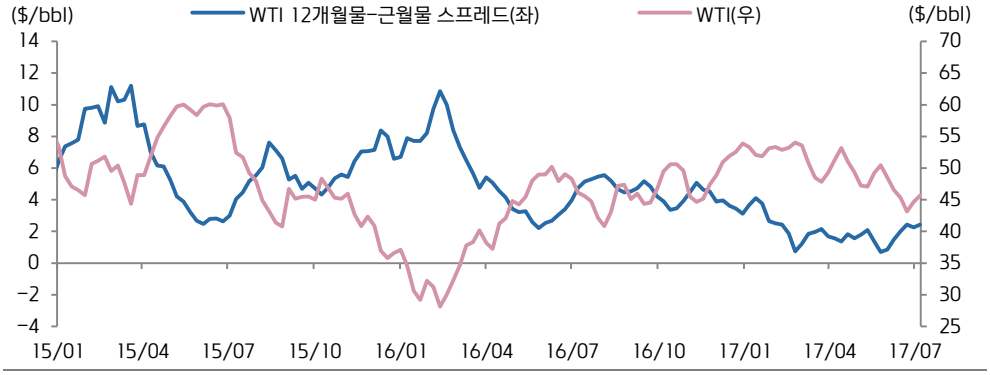
OPEC이 2016년 11월처럼 '원유 재고 회복'과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계속 추구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로서 OPEC은 감산 규모를 더 확대할 것이다.

작년 11월 OPEC의 감산 결정 이후 현물 가격 상승 기대 속에서 WTI의 원월물과 근원물과의 스프레드가 좁혀지기 시작했다. OPEC 입장에서는 콘탱고(선물가격)현물가격)였던 원유 시장을 백워데이션(현물가격)선물가격)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하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경우, 그간 재고를 쌓아뒀던 셰일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보다는 현재 판매량을 높여 재고를 털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OPEC은 목표로 하는 '재고 감소'를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그래프처럼 5월 감산 이후로는 선물과 현물간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 과잉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급 과잉 이슈 해소를 위해 OPEC이 추가 감산을 결정한다면, 현물 가격 상승을 통한 백워데이션 형성으로 향후 원유 재고 감소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유가는 재고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럴당 55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WTI 현선물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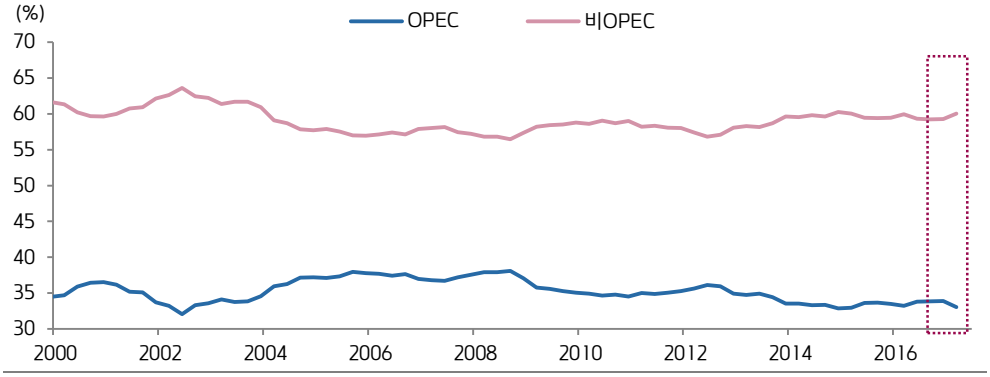
시나리오②: OPEC 이 시장 점유율을 택한다면?

OPEC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오히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5~2016년처럼 증산을 단행해 유가 하락을 감내해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택하는 방안이다.

작년 11월 감산 결정 이후 OPEC은 시장 점유율을 포기하고 국제유가 반등을 고려했지만 미국 등 非OPEC의 생산량 증가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45~55달러인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생산량을 더 확대하는 가운데 OPEC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져, OPEC으로서는 국제유가 반등도 얻어내지 못하고, 시장점유율도 잃게 되는 입장에 처해있다.

非OPEC의 생산량 증가로 유가의 반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OPEC이 시장 점유율 위축을 우려해 다시 '증산'으로 대응한다면,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해 배럴당 40달러선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한다.

OPEC과 비OPEC의 원유 시장 점유율(생산량 기준)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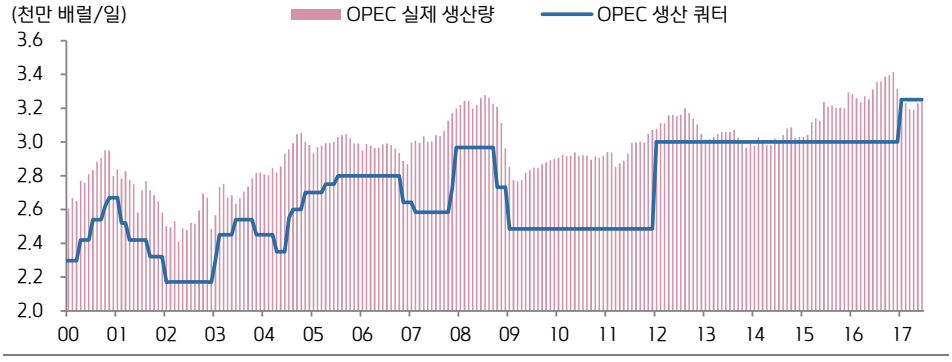
OPEC 의 높은 감산 이행률, 계속 유지될까

과거 OPEC의 평균 감산 이행률이 6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사는 OPEC의 감산 이행률이 현재의 106%와 같이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과거 OPEC이 생산쿼터를 엄격하게 지킨 기간은 많지 않다.

감산 규모가 큰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등은 저유가로 인해 재정적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이 감산 합의 약속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산을 하더라도 국제유가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합의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엔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산유국의 입장에서 감산 결정을 통한 국제유가 반등을 확신할 수 없는 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OPEC은 추가 감산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오히려 증산을 통한 시장 점유율 회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OPEC 실제 원유 생산량과 생산 쿼터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4분기 달러 강세, 유가 하락 압력 가할 듯

이러한 공급 이슈 이외에도, 하반기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 하반기 미 연준은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반기 달러의 약세 속에 국제유가 등 '비'달러 자산의 가격 하락이 제한되었지만, 하반기 후반에 들어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최근 WTI와 미국 달러는 동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함께 위축되면서 달러의 약세가 나타난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기는 하겠으나, 미국의 노동시장 수급 여건이 타이트함 고려할 때, 임금 상승 압력을 통해 인플레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감안해 미 연준이 하반기 중 한 차례 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달러의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 결과 비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며, 국제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최근 WTI와 미국 달러가 동행하던 추세는 원래대로 복귀해 역동행성을 띨 것이다.

국제유가와 달러인덱스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WTI와 미국 BEI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배럴당 40달러 하회시, 저가 매수 전략 유효

하지만 과거 유가 하락 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원유 생산량이 감소했던 것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의 하락세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생산단가를 고려할 때, 배럴당 40달러 이하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생산 단가가 높은 국가의 원유 생산량이 다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의 하락은 제한되어 연말 배럴당 40달러를 하회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VI. 7월 둘째 주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7 월 10 일 (월)	7 월 11 일 (화)	7 월 12 일(수)	7 월 13 일 (목)	7 월 14 일 (금)
일본 6 월 핵심 기계수주 중국 6 월 소비자물가지수 6 월 생산자물가지수 독일 5 월 무역수지 미국 6 월 LMCI 고용환경지수 5 월 소비자신용	호주 5 월 주택대출증가율 6 월 NAB 기업신뢰지수 영국 인플레이션 보고서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5 월 JOLTS 5 월 도매재고	한국 5 월중 통화 및 유동성 5 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6 월 실업률 일본 6 월 생산자물가지수 영국 5 월 실업률 유로존 5 월 산업생산 캐나다 통화정책회의 미국 EIA 원유재고보고서 연준 베이지북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경기전망보고서 옵션만기일 독일 6 월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6 월 무역수지 미국 6 월 생산자물가지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한국 6 월 수출입물가지수 유로존 5 월 무역수지 미국 6 월 소비자물가지수 6 월 소매판매 6 월 산업생산 5 월 기업재고 6 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베이커휴즈시추공수
OECD 경기선행지수 발언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EIA 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 발언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OPEC 원유시장보고서 USDA 세계곡물수급전망보고서 발언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반기 하원 의회 증언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IEA 원유시장보고서 발언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반기 상원의회 증언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중국 금융공작회의 발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실적 펩시코			실적 JP 모건, 웰스파고, 씨티그룹, PNC 파이낸셜

자료: 각 언론사, 키움증권

요일	한국증시에 영향을 줄 이슈	요일별 주요 내용
7월 10일(월)	금) 미국 고용보고서 금) 미국 통화정책 보고서 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양호한 고용보고서 결과와 연준이 의회에 제출하는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에 따라 변화 예상. 이 영향으로 채권금리 및 달러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해야 할 듯 월요일 한국 증시는 금요일 채권과 외환시장 변화에 따라 등락 예상. 한편, 이날 발표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변화도 주목.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자신감이 유입되며 상승 전망
7월 11일(화)	월) OECD 경기선행지수	월요일 글로벌 증시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여전히 상향 조정 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에 대한 자신감 유입되며 상승 전망 화요일 한국 증시는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깊은 OECD 경기선행지수 결과에 따라 변화 예상
7월 12일(수)	화) 국제유가	화요일 글로벌 증시는 국제유가 변화에 따라 등락 예상. 특히 EIA 단기 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원유 공급 증가 전망과 수요 감소 가능성이 높아 유가 하락 가능성에 주목 수요일 한국 증시는 국제유가가 EIA 보고서 발표 이후 하락 가능성이 높아 부담. 특히 이 여파로 외국인의 매도 가능성 주목
7월 13일(목)	수) 국제유가 수) 옐런 연준의장 발언 수) 미국 베이지북 수) 캐나다 금리인상 목) 중국 무역수지	수요일 글로벌 증시는 중요 이슈로 인해 변화폭이 커질 듯. OPEC 월간 보고서를 통한 국제유가의 변화. 미 연준의 베이지북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음. 한편, 옐런 연준의장의 의회 증언도 주목해야 하며 캐나다 금리인상 이후 기자회견 내용도 시장에 영향을 줄 듯 목요일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영향에 따라 변화가 확대될 듯. 한편, 중국의 무역수지 결과도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7월 14일(금)	목) 국제유가 금) 중국 금융공작회의	목요일 글로벌 증시는 옐런 연준의장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더불어 IEA 원유시장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유가의 변화도 주목 금요일 한국 증시는 국제유가의 변화와 옐런 연준의장의 발언 내용이 지속적인 영향을 줄 듯. 한편, 이날 중국은 5년만에 금융공작회의를 개최. 전반적인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